

20 韓半島 한반도

1901년 / 信夫淳平(노부오 준페이) / 694면 / 14.10-09 노 1901

일 본인 信夫淳平(노부오 준페이)가 1901년 9월에 출판한 694면의 방대한 책이다. 信夫(노부오)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한말(韓末) 우리나라에서 일본 총영사(總領事)로 3년 간 근무했다. 한말에 우리나라에 관한 저서는 러시아 재무부가 발간한 『韓國誌(한국지)』를 비롯하여 1880년에는 『조선의 역사와 풍습(英, 존 로스)』와 『금봉(禁封)의 방토(獨, 엘네스트 옷베루트)』가 있다. 1882년에는 『은둔의 나라 조선(美, 구리피스)』, 1884년에는 『재한기(在韓記) (英, 카루스)』가 있으며, 1894년에는 『극동문제(英, 칼손)』 등이 있다.



이들 저서는 어느 것이나 일독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 『韓半島』는 서양인들의 저술보다 구체적이다. 한말의 한국 사정을 소개한 기록 중에는 뛰어난 저서이므로 여기저기 많이 인용되고 있다. 필자가 외교관 출신이면서 경제, 특히 재정에 밝은 사람이라 국제관계에 있어 무역과 정부예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연고에서인지 이 책은 당시의 무역항만별 제반 통계에 70여 면을 할애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발문(跋文)을 쓴 사람이 6명이나 된다.

내용을 보면 제1장 부산과 인천 33면, 제2장 경성 108면, 제3장 경북궁과 경운궁 25면, 제4장 개성부 24면, 제5장 평양과 진남포 12면, 제6장 성환(成歡)의 고전장 13면, 제7장 행정조직 80면, 제8장 재정 79면, 제9장 국제관계에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 프

랑스,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와의 관계를 196면에 걸쳐 상술하고 있다. 제10장에서는 각국의 이익선이라 해서 철도 포설권을 비롯한 광산 채굴권 등을 43면에 걸쳐 취급하였고, 제11장에서는 우리나라에 관한 당시의 여러 가지 통계에 71면을 할애하고 있다.

제2장 서울을 서술한 부분에서는 당시의 서울 시가지가 조선조 500년의 수도답게 도시계획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찬미하는데, 당시 중국의 북경보다 더 근사하게 짜여 있었다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당시 서울에는 20만 인구 중 20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명의 양반이 살고 있었다 한다.

필자는 서울 - 평양 간의 도로 상태를 기술하고 있는데 전기한 러시아 재무부가 발간한 『韓國誌』의 기술과 비슷하다.

